

160조 ‘한국판 뉴딜 전쟁’ 광주·전남 공동대처 시급

광주역, 무안공항, 여수·광양항
삼각축으로 지역의 미래 개척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한국판 뉴딜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 통합 논의에 들어간 광주·전남도 국가불균형 시정을 위해 공동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린·디지털 뉴딜(84조6000억원)과 함께 75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지역균형발전 뉴딜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비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락을 거듭하고 있는 광주·전남이 다른 지자체들과의 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성·연계성·혁신성·지속성 등을 담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은 초광역권 교통·경제·행정 통합 구상을 근거로 한국판 뉴딜 사업 나서고 있어 광주·전남도 행정 통합 논의와 함께 광주역과 무안국제공항, 여수·광양항을 삼각축으로 지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부·울·경은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한 통합경제권 인구 800만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근거로 기존의 그린·디지털 뉴딜에 지역균형발전 뉴딜을 연계하는 사업들을 내놓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오는 2022년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연결 사업들로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 수립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사업을 보면 부산·울산·경남권은 31개 사업 12조 8642억원, 대구·경북권은 23개 사업 4조2540억원, 대전·충청권은 20개 사업 6조1959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광주·전남권은 7개 사업 1조8516억원에 그치고 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 등을 합치면 광주·전남과 타 권역의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전문가들은 광주·전남도 행정 통합 논의와 함께 광주역과 전남 서부권의 무안국제공항, 전남 동부권의 여수·광양항을 삼각축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광주·대구간의 달빛내륙철도(광주·담양·순창·남원)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 호남선과 전라선을 잇게 만들고 ‘광주역 지하화’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상의 광주역 부지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 광주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림이다. 또 광주도시철도를 나주·화순·담양·장성·영광 등 인접 시·군과 엮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한편, 전라선 KTX 신설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포함과 함께 송정역사 개발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2면으로 계속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호남을 지역균형 뉴딜 수도로”

민주당, 광주서 최고위 개최 ‘뉴딜사업 전폭 지원’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텃밭인 호남을 찾아 광주와 전남을 한국형 뉴딜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 회에서 올해 정기국회 들어 처음으로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를 열고 광주와 전남이 추진중인 뉴딜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추진중인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과 2045년까지 탄소 중립도시 건설이 한국 뉴딜의 핵심인 만큼 광주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남이 추진하는 그린 뉴딜과 블루이코노미도 전남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만큼 전남의 힘찬 도전을 우리가 성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26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던 지역 현안에 대한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군 공항 이전 지원법 조속 처리 문제는 국회 국방위원회장과 민주당 간사에서 건의해서 빠른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5·18 관련법 당론 추진은 처리됐고, 국립 5·18 민주묘지 확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용역비를 반영하기로 국회 정부위원장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송정역 확장 사업과 전남과 전북의 공통 관심사항인 전라선 KTX 문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도록 김현미 국토부장관께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최고위원들도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 광주와 전남이 추진중인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주를 문화 수도로 만들자고 했다”면서 “2020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약속한다. 호남을 지역균형을 선도하는 뉴딜 수도로 만들겠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미래와 시대를 이끌어갈 AI 수도로 호남을 키워내겠다”고 다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핑크몰리 정원에서 ‘가을날의 여유’

1일 전남 함평군 함평천 일대에 조성된 핑크몰리 정원에 관광객들이 찾아 가을날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 주제
합병서 가족 등 4명 코로나 확진
접촉자 923명 검사 진행 중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이달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부과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뉘고,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하거나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헬러인 불야성’ 광주 코로나 불감증 ▶6면
KIA 윌리엄스 감독이 밝힌 ‘1년 간의 소회’ ▶18면

광주일보 지면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5년 편집 디자인 혁신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넘어간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다중 이용 시설은 9시에 문을 닫는다. 1주간 일평균 800~1000명이 이상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전국이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된다.

한편 주말과 휴일 합평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4명이 발생했다.

주말인 지난 31일 합평에 사는 30대 여성 A씨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일 오후 A씨 조카가 확진됐다. A씨 자녀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집 원생이며, 추가 확진된 조카 역시 어린이집 원생이다. 방역당국은 A씨가 최근 자녀들을 데리고 시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경기도 천척집 등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병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을 소독하고 직간접 접촉자 923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일 하루 동안 합평지역 유·초·중학교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광주의 새로운 심장으로서 떠오를 지식산업 핫플레이스! 허드슨 1041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홍보관: 광주 서구 마곡동 165-14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마곡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
※ 용도: 지식산업(연세공업) 및 근린생활시설 ※ 건축면적: 3,488.68㎡ ※ 연면적: 37,879.33㎡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지산·창고 21실 | 운송 및 문화집회시설 3개소 |

※ 본 홍보물의 내용은 본진 및 인쇄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2층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 등 이미지는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기재된 개발계획은 사업조건, 국가정책, 지자체 및 기타 기관에서 발한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권한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공금액 등 정부정책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소비자 피해 배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학부별 입찰 미디어 파사드는 예정된 시일대로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입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